
#라오스#방비엥#개척자들

살아 남기

2017. 09. 07 - 2017. 02. 05



01. 라오스팀



Chai (은나)
Phonsung
라오룸족



Vilai (재영)
Namone-neua
몽족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종족의 마을로 파견



Banna (인호)
Phoudindaeng
카무족



Nok noi (다현)
Viengsamai
라오룸족 + 카무족

02. 생활

Home-stay



02. 생활



일어나 밥해먹고 치우고 일하고
쉬고 다시 일하고...
한국과 비슷한 생활?!

02. 생활

떠나는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숙호안**



언어는 이웃에게 배우는게 제 맛!

우리는, 가족 및 마을사람들과 어울리며 언어와 문화 그리고 잊고 지냈던 **여유로움**을 배워갔습니다.

수확과 가정의 평안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불교문화 **떡**
빔



쉬는 날엔 머리도 깎고~

02. 생활

자급자족하며 살아가기에 필수적인 일들을
몸으로 익히고



벼 수확



땅콩 밭 정돈



과일 따기



떨 감 구하기



고기 잡이

02.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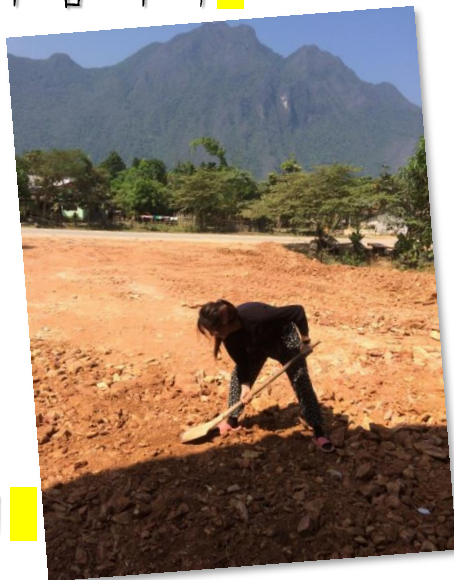
돼지 밥 주기



화장실 짓기



마당 잡초 제거



땅 메꾸기



펜스 설치

가족의 일원으로서 해
야 할 일들을 함께 하며 “현
지인”으로서 살
아갔습니다

03. 생활평가



작은 것에 감동이 넘치는 소박하고 소소한 일상

비자트립이 없었다면 팀이란 생각이 들지 않았을지도^^

깨가 쏟아지는 라오스팀!!

공유는 좋은데 쓰고 제자리에 가져다 놔줬으면...

호스트 가정은 사랑입니다

생존을 위한 요리?

아산훈련과의 평행이론

다 알아들겠는데 엄마와의 소통은... 아직도 어렵다

04. 활동

Youth center & Others



04. 활동

#영어 교육

2017. 09. 10~ 2018. 02. 01



Phonsung Youth center



Namone Primary school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어교육은 필수였고

영



Calvin Colle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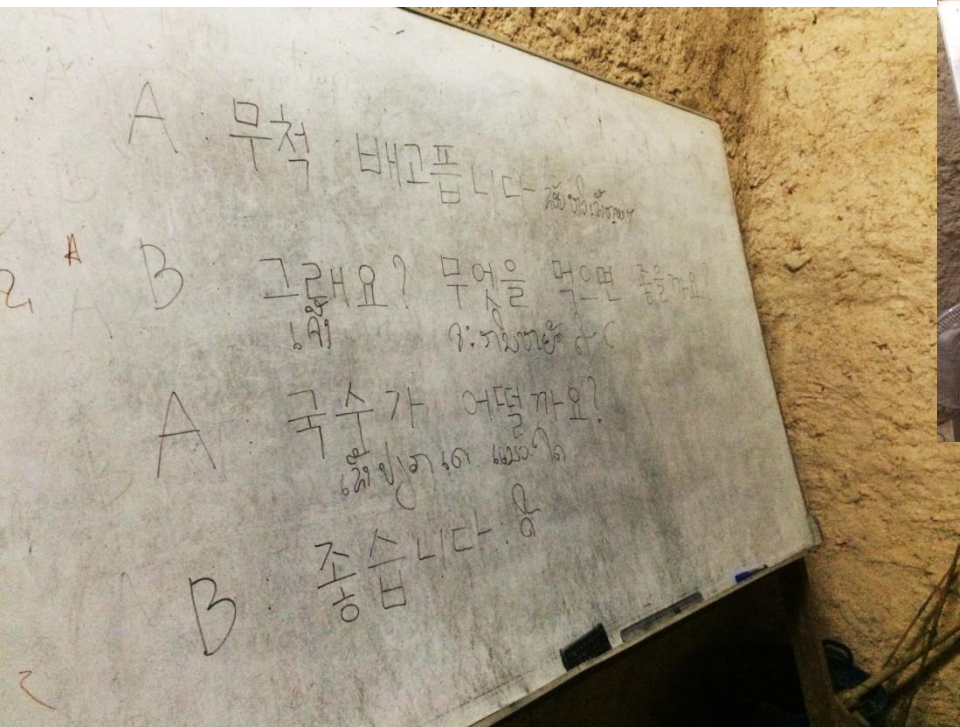
Viengsamai Youth center

04. 활동

#한국어 및 컴퓨터 교육

2017. 09. 10 ~ 2017. 12. 31

수요에 따라 개설한 **한국어 반**과 **컴퓨터 반**은,



현지가이드 일을 하는 청년들과 컴퓨터를
처음 접하는 아동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04. 활동

#신체활동 기획

2017. 09. 10~ 2018. 02. 01



댄스



축구



족구



배구

주말에는 아이들과 공도 차고 춤도 추면서
지친 몸과 맘에 **쉽**을 선물했습니다

04. 활동

#월드프렌즈 인솔

2018. 01. 09~ 2018. 01. 22



5개월 전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던 우리의 라오스 첫 생활을 떠올리며,
대학생 봉사단이 진정한 라오스를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었습니다.

04. 활동

#여행자학교 인솔

2018. 01. 12~ 2018. 01. 25



우리가 살고있던
마을의 생활을
청소년 Y에게
전해줄 수 있는
시간 이었습니다.



04. 활동

#개척자들

2017. 11. 30 ~ 2018. 02. 03



유난히도 추웠던 올해 겨울을
지내기 위해 추위와의 **사투**를!



방콕라테시 강황으로 만든 카레~

라오스처럼 **생존**을 위해
준비했던 식사들



제주 **강정마을**에서의 잊지 못할 활동들과 교육

04. 활동



마을 사람들과 관계 맺기



감사의 밤 mc역 할까지!



양평에서의 활동들

05. 활동평가

라오스에서

나름대로 사람들과 잘 어울릴 줄 안다고 생각하며 지금껏 살아왔는데, 얼마나 큰 자만이었는지 깨달았다.

언어가 안되니 소통이 어려웠고 나는 소통이 안되는 곳에서 충분히 외로움을 느끼며 그 시간들을 보냈고 나를 돌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과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일찍 돌아온 것이 아쉽지만 인간 김은나로서 조금 더 성장하는 시간이었음은 확실하다.



Chai (은나)
Phonsung

05. 활동평가

한국에서

활동을 제대로 끝마치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자괴감에 빠져
힘들어하다가 한국에서 다시 활동을 이어 나가게 되었다.

이 또한 쉽지는 않았지만 여러 국내 활동가들을 만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중요하다고 여겨왔던 여러
가치만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는 시간이었고, 그만큼 지금까지와
는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Chai (은나)
Phonsung

05. 활동평가

라오스에서의 고민거리

현지 청년이나 가족과의 불통에서 오는 답답함에 대해 상실감만 맛봤지, 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진 않았을까. 왜 더 도전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했을까. 끝까지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와 아쉽다.

종종 한국과 다른 여성의 역할에 대해 민감하고 버거울 때가 있었다.

나누고 싶은 대화거리

현지 홈스테이 생활을 통해 한 가족, 한 마을의 일원으로서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데에 소속감을 크게 느꼈다

다른 아씨들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팀 활동이 있었으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사실 각 마을 파견은 혼자 있을 때 부족한 내 모습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끼는 등 내 본 모습을 마주하는 성찰의 기회였다.



Nok noi (다현)

Viengsamai

05. 활동평가

정해진 일정에만 맞춰 자원활동을 하다 보니,
활동에 대한 지루함과 마을에서 어울리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후 마을 서포터즈와 논의 하여 일정을 유동적으로
수정하여 농사일 / 마을축제 참여 / 야간 스쿨 운영 등
다방면으로 자원활동 범위를 넓히다 보니
전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모습을 스스로가 느꼈고,
마을 사람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어
활동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Vilai (재영)

Namone-neua

05. 활동평가

활동을 통해 알아가는 것

홈스테이를 통해 한명의 가족 구성원이 되어가는 과정이 참으로 만족스럽다.

현지아이들과 친해지면서 수업의 재미가 올라가는 재미가 있다.

현지 대학생들과의 만남으로 영어에 대한 욕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다른나라 사람들과 교류로 인해 다양한 문화를 간접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좋다.

활동 평가

나는 영어교사를 하기 위해 이 나라에 온 것은 아는데...

집-센터 무한 반복의 일상

바쁘고 지친 청년들 ... 나누고 싶은 대화를 꺼내기가 두렵 - 빈곤퇴치

내 자신이 스스로 겁먹고 시도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Banna (인호)

Phoudindaeng

05. 활동평가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고 싶은 점

물어보지도 않고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 - 26년 동안 고쳐지지 않는 것
무관심인듯 아닌 듯 한 현지 스태프의 관심 - 그렇기에 더욱 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 하고 싶어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다른 쪽으로 생각할 때 뭐든지 좋다, 잘 결정했다고 말해주는 스태프에게 고마움을 느낄 때도 있다.

외국인이라서 따라야한다? 아니다? - 문화적인 것을 말할 때 가끔은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하는 점이 조금은 느껴진다. 또한 문화를 수용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문화라는 이름아래 모든 것을 수용해야 하는가?

기대와는 다름, 하지만 더 나은 케이스 - 마냥 바쁘고 쉴 시간이 없는 봉사활동을 기대하고 왔지만, 현실은 낯잠돌이. 하지만 그렇기에 충분히 고민하고 쉼을 누릴 수 있어서 좋다.



Banna (인호)

Phoudindaeng

감사합니다

